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김지현[†]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4년 5월 25일 접수: 2024년 6월 26일 수정: 2024년 6월 27일 채택)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i-Hyun Kim[†]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Received May 25, 2024; Revised June 26, 2024; Accepted June 27, 2024)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하고, 진로 정체감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U광역시와 G광역시 소재 2개 대학 간호학과 4학년 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SPSS 21.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정체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스트레스, 전공만족도, 긍정심리자본, 성별이었으며 설명력은 31%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 스트레스, 진로

Abstract :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understand the degre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and to understand the factors influencing career identity. The fourth graders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two universities located in U City and G City were selected as subject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21.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areer identity. The factors influencing career identity were clinical practice stress, major satisfac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gender, and

[†]Corresponding author
(E-mail:kjh@gwangju.ac.kr)

* This study i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Gwangju University in 2024

the explanatory power was 31%.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improv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reduce clinical practice stress as a strategy to improve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linical Practice, Stress, Caree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1].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휴학이나 자퇴 등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2].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가지는 확신과 직업적 영역에서의 자아정체감을 말하며, 이는 직업 관련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개인의 명확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뜻한다[3]. 진로정체감이 확립되면, 개인은 진로 선택 과정이 원활해지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4].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향후 간호사로서 실무에 적응하고 사회화하는 데 기여하며, 직업만족도를 높여 장기 근속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5]. 최근 간호사의 이직과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원인 파악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호사 이미지, 전공 만족도[6], 자아탄력성[7], 그릿[7,8], 간호전문직관[8,9],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력[9] 등이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에는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임상 실습은 간호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학생들이 배운 이론적 지식을 간호 현장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증진시킨다[11]. 임상실습 현장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실습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감 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12].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전공과목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도 병행해야 하므로 다른 전공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습 부담을 느낀다[13].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지식을 습

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임상실습 중에 경험하는 간호업무의 과중함, 책임감 및 두려움 등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인식은 간호학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키고 진로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14].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진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심리학 분야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부정적 정서에 관심을 두고, 이를 교정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인간의 강점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15]. 긍정심리학은 긍정심리학에 기반한 긍정조직행동의 중요한 변수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 구성원 간의 행복감, 조직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심리 요인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6,17]. 따라서 간호 대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 수준 향상은 정신적 안녕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문 간호인의 필수적 자질 및 능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는 연구[18,19]를 살펴보면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스트레스 대처전략[18],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질[1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는 것은 간호대학생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긍정적인 발전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간호사로서의 직업 적응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1]. 이에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중심으로 간호대학생에게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주요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 진로정체감 간의 정도를 파악하며,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진로정체감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U광역시와 G광역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11월부터 12월에 이루어졌다. G*power 3.1.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중간효과 크기 .15, 7개의 예측변수로 하여 산출했을 때,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130명이었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불완전한 응답 설문지를 제외하고 14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발적인 동의를 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비밀보장 등을 직접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자에게 학생에게 소정의 답례품(문구류)을 제공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Luthans, Youssef와 Avolio[20]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Lim[21]이 번안 및 수정한 한국판 긍정심리자본 척도(K-PPC)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영역은 희망, 자기효능감, 탄력성, 낙관성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8개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본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im[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였다.

2.3.2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Beck과 Srivastava[22]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Kim과 Lee[23]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영역은 실습교육 환경,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실습업무부담, 대인관계 갈등, 환자와의 갈등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개 문항이며 '아주 조금/전혀 없음' 1점에서 '아주 많이 느낌'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Kim과 Lee[23]의 연구에서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2.3.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Holland, Daiger와 Power[24]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한국 상황에 맞게 Kim[25]이 번안하고, Kwon과 Kim[26]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14개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모든 문항을 역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Kim[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였고, Kwon과 Kim[2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 진로정체감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 scheffe test로 검증하였다.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였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총 145명으로 남학생 25명(17.2%), 여학생 120명(82.8%)이었다. 연령은 20대가 129명(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종교는 '있다' 75명(51.7%), '없다' 70명(48.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만족 78명(53.8%), 보통 49명(33.8%), 불만족 18명(12.4%) 순이었다. 임상실습만족도는 만족 68명(46.9%), 보통 53명(36.6%), 불만족 24명(16.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 진로정체감 정도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 진로정체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은 5점 만점에 평균 3.61 ± 0.68 , 임상실습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90 ± 0.58 ,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60 ± 0.56 이었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는 성별 ($F=2.74, p=.007$), 전공만족도($F=13.65, p<.001$), 임상실습만족도($F=11.55,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사후검증결과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 모두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진로정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3.4.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정체감($r=.32,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r=-.38, p<.001$)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3.5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력(Enter) 방식으로 다중회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ean \pm SD
Gender	Male	25 (17.2)
	Female	120 (82.8)
Age (year)		24.39 \pm 4.46
	≤ 29	129 (89.0)
	≥ 30	16 (11.0)
Religion	Yes	70 (48.3)
	No	75 (51.7)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ied	18 (12.4)
	Moderate	49 (33.8)
	Satisfied	78 (53.8)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Dissatisfied	24 (16.6)
	Moderate	53 (36.6)
	Satisfied	68 (46.9)

Table 2. Level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areer Identity

(N=145)

Variables	Mean \pm SD	Rang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3.61 \pm 0.68	1.00–5.00
Clinical Practice Stress	2.90 \pm 0.58	1.00–5.00
Career Identity	2.60 \pm 0.56	1.00–4.00

Table 3. Degree of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SD)	t/F(p)
Gender	Male	2.87±0.47	2.74(.007)
	Female	2.54±0.56	
Age (year)	≤29	2.57±0.52	-1.19(.253)
	≥30	2.81±0.80	
Religion	Yes	2.56±0.60	-.62(.534)
	No	2.62±0.51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ied ^a	2.33±0.44	13.65(<.001) a<b
	Moderate ^a	2.36±0.53	
	Satisfied ^b	2.80±0.52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Dissatisfied ^a	2.30±0.43	11.55(<.001) a<b
	Moderate ^b	2.45±0.53	
	Satisfied ^b	2.81±0.55	

Table 4. Correlations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areer Identity (N=145)

Variable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linical Practice Stress	Career Identit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		
Clinical Practice Stress	-.03 (=,759)	1	
Career Identity	.32 (<.001)	-.38 (<.001)	1

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F=10.40$, $p<.001$), 분산팽창계수(VIF)는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Durbin-Watson의 결과 1.973로 2와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조건을 만족하였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상실습스트레스($\beta=-.28$, $p<.001$), 전공만족도 '보통'($\beta=.24$, $p=.006$), 긍정심리자본($\beta=-.16$, $p=.01$), 성별($\beta=-.17$, $p=.02$)순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변수들의 설명력은 31%였다 (Table 5).

3.6.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 진로정체감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긍정심리자본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61 ± 0.68 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5,27]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Luthans과 Youssef[28]은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는 4가지 하위개념으로 희망, 자기효능감, 탄력성, 낙관성을 제시했으며, 자기효능감은 과업을 수행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낙관성은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희망은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필요할 때 목표 경로를 조정하는 능력을 나타내며, 탄력성은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28]. Luthans과 Youssef[28]은 이러한 요소들이 과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신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

Table 5. Factor influencing on Career Identity

(N=145)

Variables	B	SE	β	t	p	Adjusted R ²	F(p)
(constant)	3.44	.37		9.40	<.001	.31	10.40 (<.001)
Clinical Practice Stress	-.27	.07	-.28	-3.97	<.001		
Satisfaction with major *							
Dissatisfied	-.14	.18	-.08	-.77	.44		
Moderate	-.29	.10	-.24	-2.82	.006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6	.06	.20	2.58	.01		
Gender	-.25	.11	-.17	-2.33	.02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							
Dissatisfied	-.22	.17	-.14	-1.27	.21		
Moderate	-.12	.10	-.10	-1.14	.26		

* Reference group: satisfied

다고 했다. 긍정심리자본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개발할 수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업 및 직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룰 수 있다[29].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으면 문제해결능력과 함께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15]. 긍정심리자본은 임상실습 중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이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심리적인 역량을 갖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30].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내용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영역인 희망, 자기효능감, 탄력성, 낙관성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내용구성이 중요하다.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90 ± 0.58 점으로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31]와 비슷했다. 그러나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3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습기관 및 실습환경 등의 일반적 특성이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어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각 연구의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보통의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상실습스트레스에서 업무부담(3.40 ± 0.75 점), 실습교육환경(3.31 ± 0.63 점)순

으로 높게 나온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업무부담의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임상실습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습목적과 실습업무의 명확성, 실습시설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임상 실습을 제공하는 기관과 간호학과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진, 학생, 지도교수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실습업무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2.60 ± 0.56 점으로 선행연구결과[6,33]와 비슷했다. 이는 대상 학년 및 연령 분포 등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3점을 넘지 않아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게 파악된다. 진로 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을 의미하며, 올바른 진로정체감 형성은 긍정적인 자기 이해와 자존감을 기반으로 하여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 선택을 돕는다[31].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사로서 취업 후에도 간호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31], 직업을 유지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이 진로정체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았다.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성별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지만[7],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6,8,9]도 다수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를 '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이 진로정체감이 높았다. 선행연구[34]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하고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성적에 맞추어 입학한 학생보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 입학 전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학 전 간호학과를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학차원에서 시행해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학을 선택하여 입학한 후에도 흥미를 갖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서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긍정심리자본은 진로정체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을 높이고,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진로정체감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임상실습스트레스, 전공만족도, 긍정심리자본, 성별로 확인되었으며, 31%의 설명력을 보였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긍정심리자본과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비교할만한 선행연구가 없지만,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을 연구한 결과[35]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긍정심리자본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므로 임상실습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계획 시 긍정심리자본 요소의 적용도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상실습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대처능력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연구결과[35]를 토대로 임상실습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교과 내·외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간호학생들이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고 간호사로서 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써야한다. 더불어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고 실습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교육과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도록 해야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 임상실습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고, 긍정심리자본과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진로정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대상자 및 지역을 확대하여 추후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실습기관의 규모, 대학병원 부속의 유무, 실습시설 등의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H. J. Kim, J. H. Kim,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gri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2 pp.152-162, (2021).
2. M. J. Kim, H. K. Lee, "Th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s use on the relation of strengths knowledge and career decision level among college students: Multi-group analysis based on goal orientation Typ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17, No.12 pp.600-616, (2017).
3. J. J. Holland, D. C. Gottfredson, P. G. Power,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9, No.6 pp.1191, (1980).
4. G. V. Gushue, K. R. Scanlan, K. M. Pantzer, C. P. Clarke,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exploration

-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33, No.1 pp.19-28, (2006).
5. E. J. Lee, H. J. Kim, E. B. Park, J. H. Park, M. J. Jeong, J. H. Jeong,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areer search 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 pp.263-278, (2018).
 6. E. J. Jo, J. H. Park, K. M. Lim, "The convergent effect of nurses'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10 pp.329-337, (2019).
 7. M. J. Yun, H. K. Jin, "Influence of grit and self-elasticity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9, No.6 pp.1135-1141, (2023).
 8. J. H. Park, M. K. Moon, "The influence of fear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28, No.1 pp.1-7, (2024).
 9. Y. K. Park,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problem-solving ab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Aging 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Vol.14, No.2 pp.47-59, (2022).
 10. S. Y. Roh, "The Effects of Strengths Knowledge and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9, No.4 pp. 479-487, (2022).
 11. J. W. Park, N. S. Ha,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2, No.1 pp.27-35, (2023).
 12. Y. K. Eun, H. Y. Seung,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1, No.4 pp.417-425, (2015).
 13. Y. K. Ya,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skil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igu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5, No.1 pp.58-67, (2018).
 14. M. H. Sung,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8, No.1 pp.18-24, (2012).
 15. E. Jeong, M. R. Ju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9 pp.309-317, (2018).
 16. J. S. Kim,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pital of college students on job search self-efficacy and employment-preparation behavior", *Andragogy Today*, Vol.28, No.2 pp.43-67, (2015).
 17. C. M. Youssef-Morgan, F. Luthans, "Psychological capital theory: toward a positive holistic model", *Advances in Positive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1, No.1 pp.145-166, (2013).
 18. Y. S. Seo, C. Y. Jeo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y Promoting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y Promoting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7 pp. 90-99, (2020).
 19. H. H. Joo,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y Program on Depressi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1 pp. 431-436, (2020).
 20. F. Luthans, C. M. Youssef, B. J. Avolio.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Oxford University

- Press, (2008).
21. T. H. Lim,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PPC)",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Vol.16, No.3 pp.157-166, (2014).
 22. D. L. Beck, R. Srivasta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0, No.3 pp.127-133, (1991).
 23.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98-106, (2005).
 24. J. L. Holland, D. C. Gottfredson, P. G. Power,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9, No.6 pp.1191-1200, (1980).
 25. B.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26. Y. H. Kwon, C. N. Kim,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13, No.2 pp.216-229, (2002).
 27. Y. M. Kim,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7 pp.112-122, (2016).
 28. F. Luthans, C. M. Youssef, "Emerging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Vol.33, No.3 pp.321-349, (2007).
 29. M. Seligman,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nd ed*, New York:Wiley, (2002).
 30. J. Y. Kim, "Metacognit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3, No.16 pp.717-727, (2023).
 31. M. A. Kang, S. K. Lee.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4 pp.452-461, (2016).
 32. M. S. Park, M. J. Yoo, "The effect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self-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29, No.4 pp.105-114, (2024).
 33. S. Y. Jun, Y. J. Lee,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lasticit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on career ident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9 pp.767-783, (2020).
 34. Y. K. Kim, S. Kwon, H. G. Son, "The influence of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quality of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 Vol.20, No.3 pp.1570-1593, (2018).
 35. K. M. Kim, "Relationship between ego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nverging Humanities*, Vol.3, No.1 pp. 73-87, (2015).